

정신장애인의 직업의 의미

- 아시아인과 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

김 민⁺

(보스턴대학 정신장애 재활센터)

밀리 우마

(보스턴대학 정신장애 재활센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직장에서 받는 메시지 및 차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고용관련 서비스와 직업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 서비스의 참여율이 낮고 중도포기율이 높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와 사회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Millner(2015)가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장애에 대한 연구결과와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인지인터뷰와 과일렛 테스트에 참여하여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설문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어 총 91명의 정신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 t-test가 사용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였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계 백인보다 직업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소수인종과 정신장애라는 이중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문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의 의미,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중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아시아계 미국인, 직업의 의미, 사회적 차별, 메시지

+ 주저자

1. 서론

고용은 장·단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참여, 삶의 질, 정신장애의 회복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Leff and Warner, 2006). 이들의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해 미국에는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ies Act, 1990), 노동인구 증진법(Workforce Investment Act, 2005)과 같은 다양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률과 고용유지 기간을 높이기 위해 고용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영역과 비교해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Harvey et al., 2013; Kim, 2013; SAMHSA, 2014).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낮은 고용률의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연구·개발하고 있다(Asakura et al., 2008; Lo and Cheng, 2014).

최근에 실시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관련 연구에서 이들의 낮은 고용률에 더하여 인종에 따른 고용률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Lo와 Cheng(2014)은 정신장애를 가진 소수인종(예, 아시아인)의 고용률은 정신장애를 가진 미국계 백인의 고용률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현재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관련 프로그램들이 미국계 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많은 정신장애인 고용관련 연구자들은 메인스트림에 있는 다수의 정신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두어 전략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 있지 못한 소수인종은 제한된 사회참여, 낮은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 서비스 제공자들의 낮은 문화이해 정도, 작업장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0; Gewurtz et al., 2015; Glover et al., 2010).

미국의 건강보험과 질적 연구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0)은 미국계 백인의 80%,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50%이상, 아시아 미국인의 30%이하가 회복과 고용관련 서비스(정신장애 증상을 낮추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회복 서비스와 직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데 유용한 고용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미국 내에서 발표된 정신장애인의 고용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라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Himle et al., 2014)의 회복과 고용 서비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소수인종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은 변화가 거의 없다. Donnell 외(2011)는 소수인종의 낮은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이유로 현재 많은 회복 및 고용전략이 소수인종에 대한 문화적 이해 없이 개발된 것을 강조하였다. 소수인종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관련된 연구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정신장애로부터 낮은 회복율과 고용률을 보이며 낮은 서비스 참여율과 높은 중도포기율을 보인다(Liu et al., 2011). 이러한 낮은 서비스 이용률과 높은 중도포기율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인종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문화가 정신장애 회복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Hwang et al., 2015).

물론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직업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과

인종의 차이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양식을 접목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Sue 외(2012)는 직업 훈련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이해 정도에 따라 서비스 참여율, 중도탈락률, 종료 후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소수 인종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구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서비스 참여율과 만족도, 고용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직업과 문화에 대해 알아본 연구의 수는 매우 적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직업의 의미, 직장 내에서 경험한 사회적 차별, 고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도와주고 정신장애로부터 회복 및 고용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종에 따른 직업의 의미와 이들의 문화적 이해를 기본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소수인종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인해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Liu et al., 2011).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며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직업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고 이를 미국 사회의 주류인 미국계 백인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정신장애를 가진 미국계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직업의 의미는 어떠한가? (2) 만약 그룹 간 직업의 의미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영역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인들의 직업의 의미,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이를 통해 고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점차 다문화되어 가는 국내 상황과 높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정신장애인들의 회복과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개발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고용은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Blustein, 2006). 직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겠지만 이 밖에도 직업은 개인의 흥미, 개인이 가진 기술, 삶의 스타일,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이 높다(Erikson, 1959; Fouad and Byars-Winston, 2005). 결국, 직업 혹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매일 매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개인과 관련된 모든 의미있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Blustein, 2006). 광범위한 직업의 의미는 남녀노소, 장애유무, 지역, 인종을 떠나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Fouad and Byars-Winston, 2005). 직업은 정신장애인들이 장애로부터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Auerbach and Richardson, 2005; McGurk and Mueser, 2014). 정신장애 증상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단기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work) 및 경력(career)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audet et al., 2000). Blustein(2006)은 직업과 경력은 단순히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누거나(협리적 정의), 이 두 가지는 인생의 최종목표인 자아실현과 연결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과정을 포함한다(광의적 정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은 병원에 갇혀 있던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이들에게 정신장애로부터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 정부는 탈시설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내 이러한 회복과 사회복귀 서비스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많은 사회복귀와 회복 서비스는 직업 서비스 없이 정신장애관련 증상(예, 환각, 환시, 환청)을 낮추는 데에만 초점을 둔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Kim, 2013). 탈시설화를 통해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이 완화되어 사회로 복귀하였지만 낮은 고용가능성으로 인해 이들은 완전한 회복 및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고 공적부조 서비스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 또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작업장과 같은 제한된 직업기회만이 제공되었다. 다른 장애영역과 비교하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며, 이들이 취업했다 하더라도 임시직 혹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Cook et al., 2005; Lerner et al., 2004).

이러한 현상은 정신장애인의 고용 및 훈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연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들의 취업과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난 지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들의 고용관련 연구는 신체장애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고 이들의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 또한 많지 않다(Salkever, 2013).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다음 4가지를 보고하였다(Elliott and Leung, 2004; Wewiorski and Fabian, 2004): (1)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부재; (2) 공적부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취업을 회피하거나 권장되지 않는 사회적 현실; (3) 정신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용시장의 자원부족; (4) 고용주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높은 사회적 편견. 위에 언급한 4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장기적인 의미에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직업서비스가 필수적이며, 고용과 정신장애 회복과 사회복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찾아냈다(김여진, 2009; 정은진, 2010; Drake and Bond, 2008; Kennedy-Jones et al., 2005). 정신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윤미용, 2012; Russinova et al., 2011).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고 있다(Drake and Bond, 2008; McGurk and Mueser, 2014).

최근 10년 동안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신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를 사회정책에 반영함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의 고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계 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다(Asakura et al., 2008; Lo and Cheng, 2014). 특히, Burke-Miller 외(2006)는 백인들에게 초점을 둔 연구로 인해 소수인종(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연구부채를 강조하였다. 제한된 연구로 인해 소수인종은 정신장애라는 1차적 걸림돌과 고용관련 서비스의 부재와 고용기회의 제한이라는 2차적 걸림돌은 물론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낮은 문화이해 정도 및 작업장에서의 차별이라는 3차적 걸림돌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Gewurtz et al., 2015; Glover et al., 2010; Mueser et al., 2014; SAMHSA, 2014).

미국 곳곳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소수인종의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것이 직업의 의미와 직업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urke-Miller et al., 2006; Mueser and McGurk, 2014). 그 중에서도 서구사회와 문화적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Arnold et al., 2013; Barreto and Segal, 2005).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하면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이러한 이민가족 내에서 태어난 이민 2세 혹은 3세를 의미한다(Barreto and Segal, 2005). 물론 아시아인 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아시아인들은 공통점이 더 많다. 예를 들어 Lam 외(2010)는 아시아인들은 정신장애가 신체나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 나타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이 체면을 잃는다. 아시아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스티그마를 가진 것을 보고하였다(Tse et al., 2013).

몇몇 연구자들은 서구문화와 비교하여 아시아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였다(Lam et al., 2010; Tse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낮은 회복과 고용 서비스 이용률, 높은 중도탈락률,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AMHSA, 2014; Link and Phelan, 2006).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다양한 소수인종의 직업관련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를 탐구한 연구자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높은 서비스 이용격차와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음 3가지를 언급하였다: (1) 정신장애에 대한 서구의 문화적 가치 차이 및 이해 부족(David, 2010; Pearce et al., 2006), (2) 문화적 스트레스 요인(예, 의사소통, 사회적 차별)으로 인한 제한된 서비스 접근성(Leong and Kalibatseva, 2011), (3)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소수인종의 직업의 의미와 직업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의 부재(Hampton, 2000; Stone, 2005)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과 서양의 정신장애에 대한 가치 및 인식차이(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로 인해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인들은 회복과 직업복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러한 차이는 낮은 서비스 이용률과 높은 중도탈락률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회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성공적으로 취업한 사례가 많지 않다. 둘째, 아시아인의 높은 교육열, 성공을 위한 높은 기대수준, 높은 근로강도로 인해 직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의 낮은 문화동화 수준(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낮은 영어수준)으로 인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여도 고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2013년 현재 아시아인들은 미국 내 낮은 인구밀도(전체 인구 중 5%이하)를 보이고 있다(SAMHSA, 2014). 이로 인해 직업관련 연구들이 비교적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미국인구의 13%) 혹은 라틴계 미국인들(미국인구의 16%)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높은 서비스 이용격차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인종의 문화를 탐구하고 이들의 고용과 회복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Asakura et al., 2008; Burke-Miller et al., 2006).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불균형을 낮추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Lam et al., 2010; Lo and Cheng, 2014).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계 미국인은 현재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이며 회복과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시 문화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이 그룹을 대상으로 직업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Millner 외(2015)가 2011년에 실시한 정신장애인, 직업, 장애, 삶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금전적 지원을 얻으며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있어서 직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2015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직업의 의미,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과 직장이나 직업훈련 중에 받은 메시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혼합연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design) 중 Creswell(2013)이 언급한 병렬적/동시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일반적으로 양적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설문조사에 질적 연구를 위해 개발된 개방형 질문들을 추가한다. 연구자는 양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 각각의 연구를 상호 보완한다(Creswell, 2013). 따라서 양적 연구를 통해 현재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직업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개발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다. 모든 연구방법 및 절차는 기관감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2) 연구참여자

연구대상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인과 미국계 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한다: (1)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혹은 고등학교 이상의 영어수준을 가지고 있음, (2) 현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동안 최소 6개월간 일함, (3)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온 아시아인 혹은 미국계 백인, (4) 정신장애로 진단받고 이로부터 회복하고 있음. 연구참여자의 직업의 의미와 이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Qualtrics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6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참여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 71(44%)명을 제외한 총 91명(56%)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성($n=73$, 80%), 중장년층($M=40.0$, $SD=11.1$), 미국계 백인($n=72$, 79%), 아시아인($n=19$, 21%), 대학이상의 교육수준($n=83$, 82%)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진단 명으로 우울증 28%($n=66$), 불안장애 24%($n=5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15%($n=36$), 공황장애 9%($n=22$), 정동장애 9%($n=21$), 강박장애 4%($n=10$), 기타 6%($n=14$)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 회복을 위해 평균 2.5개($SD=1.6$)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의사 혹은 상담사와 일대일 서비스 35%($n=82$ 명), 약물 진단 혹은 평가 30%($n=70$ 명), 집단치료 12%($n=27$ 명), 정신과 병원 입원 6%($n=15$ 명), 낮병원 서비스 5%($n=12$ 명), 사례관리자와 면담 5%($n=11$ 명), 병원 외래 서비스 4%($n=9$ 명), 기타 2%($n=5$ 명),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2%($n=4$ 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1%($n=74$)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9%($n=17$)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3년 내로 최소 6개월 이상 일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인들의 인종에 따른 분류는 중국계 미국인 32%(6명), 한국계 미국인 21%(4명), 필리핀계 미국인 16%(3명), 인도계 미국인 5%(1명), 베트남계 미국인 5%(1명), 일본계 미국인 5%(1명)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양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World of Work (WOW) 설문지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영역은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인구학적 요인과 정신장애, 직업관련 정보(진단유형, 이용한 서비스, 직업력, 고용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영역은 두 인종 간의 직업의 의미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Millner 외(2015)가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를 이용하여 탐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3명의 저자들이 함께 직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업의 의미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7가지 지표(직업의 중요성, 삶의 의미, 경제적 혜택, 사회적 네트워크, 정신건강, 메시지, 사회적 차별)로 구분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2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문항을 재수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된 적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6명의 정신장애인들(3명 아시아인, 3명 미국계 백인)과 함께 인지인터뷰를 실시하여 안면타당도를 높였다(Willis, 2005). 6번의 인지인터뷰 과정 중 10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예, 좋은 인성은 직업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4개의 문항이 세분화되었다(예, 직업은 내가 레저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단계로 위에 언급한 2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다시 재검증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66문항의 인터넷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 3명의 정신장애인(1명 아시아인, 2명 미국계 백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검토를 마쳤다. 각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 1>과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알아보았다. 아래와 같이 각각의 항목 및 전체적인 수준이 .70이상으로 나타나 본 설문 문항은 타당한 내적일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

영역	예시	문항 수	Cronbach's α
직업의 중요성	직업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이다.	11	.765
삶의 의미	직업은 나의 자존감(예, 내가 나에 대해 느끼고 신뢰하는 정도)을 높인다.	13	.943
경제적 혜택	직업은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	.894
사회적 네트워크	직업은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높여준다	7	.709
정신건강	일을 하는 것은 정신장애 증상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3	.735
사회적 차별	나는 직장에서 차별(예, 제한된 기회제공)에 대응해야만 한다.	11	.703
메시지	나는 정신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익히 들어왔다	3	.711
합계		66	.879

(2) 질적 연구

혼합연구의 장점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두 인종 간 7가지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을 때 어떠한 것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했는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을 구성할 때 양적 연구를 위해 사용된 7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업 및 자

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2〉 참조).

〈표 2〉 개방형 질문 구성 요인

영역	예시
직업의 의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직업의 관점 혹은 직업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어떠한 요인이 당신이 직업을 갖거나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사회적 차별	만약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차별에 대한 전략	만약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상황을 대처/모면하였습니까?

4) 자료수집

자료 수집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신장애를 가진 미국계 백인의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의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계 백인과 동일한 인터넷 양적 설문조사와 함께 〈표 3〉에 제시된 개방형 설문을 추가하여 양적 연구를 통한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전문가와 정신장애인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할 정신장애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구목적, 참여가능 조건, 설문에 대한 위험도를 포함한 전단지들을 인터넷과 직접 배달 방법을 이용하여 40개 이상의 정신장애인 직업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지역사회 모임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신장애연합회(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관련 센터를 검색하여 각 주(state)를 대표하는 20개의 센터에 전단지들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인 Facebook과 연구자가 근무하는 정신장애 재활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참여를 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을 모집하였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참여의사를 보인 참여자들을 연구 포함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별하였다. 이러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넷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웹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설문지는 미국계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해 2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만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연구 설문지를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25달러의 선불카드를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10달러의 선불카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5) 자료분석

(1) 양적 연구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 간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조사하기 위하여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3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 4점,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6점, 모르겠다 0점으로 채점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참여자들의 동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업의 중요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직업이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의미인 반면 사회적 차별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였다. WOW 연구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으며,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정신장애와 직업관련 정보(진단유형, 이용한 서비스, 직업력, 고용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집단의 직업의 의미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질적 연구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 19명의 인터넷 설문을 통한 응답자료는 레터지 16장 분량으로 정리되었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명의 연구자들은 Ground Theory(근거이론)를 이용하여 설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코딩하면서 관련 개념들의 연관성을 찾고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각각의 연구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을 모아 범주화 시켰으며,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3명의 연구자가 모여 기존의 범주와의 관계 및 명칭에 관하여 논의 및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Walker and Myrick, 2006). 수집된 자료를 개념화 및 유목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20년 이상 다문화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온 2명의 전문가와 2명의 설문응답자의 자문을 통해 범주화와 명칭을 설정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Strauss and Corbin, 1998).

4. 연구결과

1)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수준의 영역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7가지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수준은 전체 평균이 3.91(SD=.51)이다. 각 영역별 인식수준에 대한 평균 값은 4개 영역에서 '적도 4-어느 정도 동의함'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중요성, 삶의 의미, 경제적 혜택, 메시지에서 설문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인식수준

구분	전체 (n=91)	아시아계 미국인 (n=19)	미국계 백인 (n=72)	t (p)
	M (SD)	M (SD)	M (SD)	
직업의 중요성	4.84 (.69)	4.88 (.78)	4.83 (.67)	.26 (p=.793)
삶의 의미	4.26 (1.07)	4.76 (.78)	4.13 (1.11)	2.31 (p=.023)*
경제적 혜택	4.07 (1.22)	4.24 (1.01)	4.03 (1.27)	.68 (p=.496)
사회적 네트워크	3.77 (.96)	3.99 (.75)	3.71 (1.00)	1.16 (p=.249)
정신건강	3.34 (.85)	3.63 (.78)	3.26 (.86)	1.73 (p=.088)
메시지	4.03 (1.13)	3.51 (.75)	3.91 (1.18)	-2.10 (p=.039)*
사회적 차별	3.08 (.85)	3.43 (.40)	2.99 (.91)	2.04 (p=.044)*
합계	3.91 (.51)	4.21 (.50)	3.84 (.49)	2.92 (p=.004)**

*p<.05, **p<.01.

2)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의 인식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종에 따른 직업관련 경험에 대한 인식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삶의 의미(t=2.308)', '메시지(t=-2.100)', '사회적 차별(t=2.041)' 영역에서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양적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이 삶의 의미, 메시지, 사회적 차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질적 연구

(1) 삶의 의미

실제로 직업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계 백인과 달리 직업이 자신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23%, n=17), '자존감을 높인다'(22%, n=16), '개인성장에 중요하다'(18%, n=13),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18%, n=13), '삶의 질을 높인다'(14%, n=10),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7%, n=5)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정신장애를 가진) 동료들과 비교해보면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동료 정신장애인, 가게 손님)에게 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아시아인으로서 매우 똑똑해 보이고 제 전문분야를 잘 알고 있으며 손님이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아주는 등 가게 매니저로서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는 한번도 제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에 있을 때에도 다양한 책을 읽고 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 일은 제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출근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연구참여자 F).”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직업 유형은 매우 중요하며, 그 유형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은 직업 및 근면 성실한 직업의식과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직업 혹은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제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의식(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저에게는 근로자(worker)라는 정체성은 아시아인으로서,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인으로서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신장애와 상관없이 저는 많은 아시아인이 근면성실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J)

“솔직히 말하면, 제 가족들(3대가 같이 한집에서 거주함)은 제게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에 있을 때조차 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장애로부터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B)

(2) 메시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직업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족과 동료에게서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받은 메시지로 ‘정신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편견’(33%, n=15), ‘정신장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22%, n=10) ‘가족들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17%, n=8), ‘서비스 제공자의 편견’(15%, n=7),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13%, n=6)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가족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의 직업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 제가 겪은 정신장애와, 환각과 환시는 건달만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이 제가 겪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였어요. (…) 부모님은 회복과 고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 5년이 지난 지금은 가족들 모두 제가 한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이 (정신장애가) 저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수긍하지만 과거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 병원에서 소개하는 정신장애 회복센터를 방문하였지만 제가 원하는 (아시아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회복과 취업 서비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연구참여자 C)

참여자들은 직업에 대한 열정이 정신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시아인 특유의 직업적 성공에 대한 열정은 과도한 경쟁을 나으며, 높은 봉급의 직업만이 좋은 직장으로 구분되며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젊은 아시아인들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최소한 six figures(1억)이상의 봉급을 받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해요. 이것은 아시아인들에게 기준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단 내에서 실패자라고 불리며 가족들은 체면(losing face)을 잃고 말아요. 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의 취업과 관련된 기대심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자리 알아보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제가 살아온 문화를 이해 못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제가 1억 이상의 봉급을 받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였어요. 그 때 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연구참여자 M)

19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5명은 동료전문가(peer specialist)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을 갖는 과정 중에 주변에서 받은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신장애라는 걸림돌을 극복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아시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흥해야 하거나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정신장애로부터 회복하고 현재 (동료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동료들은 취업하기 힘든 조건이에요. 지금까지도 몇몇 기관은 정신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회복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정신장애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의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정신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경쟁고용에 취업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 많은 동료들은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시아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말고 자신이 중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에게는 고용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아시아인들은 고용주들에게 똑똑해 보여야 해요.”(연구참여자 E)

“동료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어요. 이러한 교육은 제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동료들의 회복과 취업을 돕는 것은 물론 회복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고용주들은 아시아인을 고용한 후 이들에게 ‘Yes Man’(윗사람

이 시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연구 참여자 F)

(3) 사회적 차별

미국장애인법, 노동인구증진법, 평등기회제공법과 같이 인종과 장애,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직장에서 사회적 차별 혹은 편견과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정신장애와 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서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정신장애와 소수인종이라는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 것을 강조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싫어서 자신의 장애를 상사나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거나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인이 많은 직장으로 취업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적 특성만으로 그 사람의 인종과 문화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인종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며 같은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자란 문화와는 다른 인종의 고유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아시아인으로서는) 2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직업을 가지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지만 (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야만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퍼바이저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진 것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정신장애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장애를 숨겨야만 했어요.”(연구참여자 H)

“직장에서 가장 큰 편견과 차별은 제가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계 백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대부분이 미국계 백인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신장애의 유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백인이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있죠. 동료들은 제가 못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박사이고 그들보다 2배 이상의 봉급을 받는데 말이죠.”(연구참여자 J)

“지금 일하는 회사는 대부분이 아시아인이예요. 이전에 일한 미국계 백인 회사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직하였어요. (저는) 이곳에서는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에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예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중국문화를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제가 중국문화를 당연히 알고 이 문화에 반드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 (어떠한 메시지를 받는지 이야기하였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제 프라이버시는 물론 비밀이 없는 그런 것 말이에요. 그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보다는 동생, 형으로 불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살아오고 미국적 문화가 몸에 배인 저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새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배척하거나 차별대우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매우 힘들어요.”(연구참여자 I)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 혹은 소수인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거나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였다(25%, n=15)',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25%, n=15)',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무시하고 멀리한다(19%, n=11)', '그들에게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18%, n=11)', '(당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이들과 논의하였다(13%, n=8)'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저는 장애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한 사람이나 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행하는 사회적 차별들이 무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로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대응전략들 등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다양한 방법 중 다문화 혹은 정신장애인 관련 학회에서 배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정신장애와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매우 유용했다고 언급하였다.

“다문화 학회는 (제가)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데 안전한 장소(Safe Zone)라고 생각해요. (학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기존의 미국계 백인에게서 나온 것이며,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Model Minority(소수인종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 -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얼굴 모양 혹은 피부색을 통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차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 차별에 대해 잘 알고 Model Minority에 대한 역사와 이와 같은 모델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차별과 편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연구참여자 A)

하지만 이렇게 대응방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언급한 어려움으로는 많은 업무로 인해 차별과 편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 제한과 교육 후 실습 기회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인종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용 집약적인 단기적인 훈련 개발(n=7)을 언급하였다.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 제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대응하지 못하냐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에 직원이 부족해서 제가 대응전략을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지 못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회복/직업) 서비스를 제 때에 제공하지 못해요. 시간을 내서 배운다 해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 부족해서 이론만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연구참여자 K)

“(역량강화를 위한 학회 참석이야기 중) 저는 3일 동안 실시하는 학회에 참석했는데 배운 것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3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예요. 학회를 갔다오면 많은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는

라 예를 먹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학회나 모임이 있으면 해요. (...) 보다 효과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M)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을 대상으로 이들 사이에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를 먼저 실시하였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생각하는 고용, 메시지, 직장에서의 사회적 차별, 대응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직업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가지 요인 중 '삶의 의미($p<.05$)', '메시지($p<.05$)', '사회적 차별($p<.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계 백인과 달리 직업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회복과 고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삶의 의미, 메시지, 사회적 차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알아보았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직업이 정신장애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직업은 자존감(self-esteem)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여 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아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직업이 개인의 삶에 있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라는 정체성이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한 Perrone 외(2001), Sheu와 Sedlacek(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인의 특성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염두에 두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언급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Duffy and Sedlacek, 2007).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이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와 직업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이들이 원하는 직업수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명확해지고 나서 고용관련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은 소수인종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서비스 제공자들의 낮은 문화이해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Gewurtz et al., 2015; Mueser et al., 2014).

몇몇 연구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수인종의 정신장애 회복을 위한 낮은 서비스 이용률을 보고하였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0; Glover et al., 2010). Leong과 Kalibatseva(2011)는 동서양의 문화적 가치 차이와 스트레스 요인(언어 및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높은 서비스 중도탈락률을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정신장애 회복관련 서비스 제공시 직업 서비스를 동시에 연계시켜주는 전략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였듯이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이들의 삶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정신장애 회복과 고용서비스 동시제공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정신장애로부터 회복은 물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또한, 회복과 고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one-stop service를 통해 서비스 종료 후 다음 서비스로의 전환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 서비스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ne-stop service는 이미 약물중독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 이용시 중도탈락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Kim, 2013; Mueser and McGurk, 2014).

둘째,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복 및 직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예, 희망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구성원이 정신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복과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신장애 이해와 인식변화를 위하여 증재방안 개발이 요구된다(Dixon et al., 2011).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 2, 3세대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아시아인의 장애와 직업에 대한 관점을 습득함으로 현재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회복과 직업 서비스를 찾거나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신장애로부터 회복하고 직업 서비스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수인종을 위한 가족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 모두가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회복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들의 서비스 참여율 증가는 물론 보다 긍정적인 회복 및 고용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Dixon et al., 2011).

연구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에서 회복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전문가들 또한 여전히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회복과 직업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Rinaldi와 Perkins(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소수인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이들의 회복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정신장애 회복 및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는 물론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Hampton, 2000; Stone, 2005; Swift et al., 2013). 이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시아인들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계 백인보다 소수인종과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편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된 틀에 자신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인종이라는 것이 이점에 되는 경우(예, 2개 언어 사용)에는 이를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장애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회복귀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수인종으로 미국사회에서 살아

간다는 것은 주류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공정한 직업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소수인종이 겪고 있는 제한된 고용기회와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탐구한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ewurtz et al., 2015; Glover et al., 2010; Leong and Kalibatseva, 2011).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 개발 후 다양한 소수인종 그룹과 전반적인 장애유형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다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를 피하거나 종교 혹은 운동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설문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인 70%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교육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차별에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한 후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차별과 정신장애 및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응전략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예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나 제한된 수의 동료전문가 수로 인해 실제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전략조차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이 더욱 문제이다. 이러한 전략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동료전문가 혹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고 다문화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회수준의 교육(2-3일)이 아닌 1일 훈련과 같이 짧지만 보다 효과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제한된 샘플 수이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어떠한 현상을 알아보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샘플 수를 권장하지만(Denzin and Lincoln, 1994), 본 연구는 19명이라는 샘플 수로 인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는 연구참여자의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문화동화 수준(acculturation level)과 이민 1세대/2세대 혹은 미국 출생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문화동화 수준과 미국 거주 기간은 다른 문화를 습득하거나 받아들인 정도로 나타나는 데 이는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와 서구문화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Swift et al., 2013).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문화동화 수준과 미국 거주 기간을 측정한 후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계 백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만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두 집단 모두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탐구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회복과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차별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계 미국인의 회복과 직업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한 함의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회복 서

비스에 활발히 참여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시아인들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회복 및 고용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현실화 될 때 이들에 대한 사회의 가치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회복과 고용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장애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여진, 2009, “취업 전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구직활동적극성 및 사회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용, 201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 2010,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0, *2010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Rockville, MD. Retrieved January 2013, from <http://www.ahrq.gov/research/findings/nhqrdr/nhdr10/index.html>.
- Americans Disabilities Act (ADA), 1990, U.S. Code. Vol, 42, sees 12101-213.
- Arnold, J., G., Miller, A., Canive J., Rosenheck, R., Swartz, M., and Mintz, J., 2013, “Comparison of outcomes for African Americans, Hispanics, and non-Hispanic whites in the CATIE study”, *Psychiatric Services*, 64(6): 570-578.
- Asakura, T., Gee, G. C., Nakayama, K., and Niwa, S., 2008, “Returning to the “homeland”: work-related ethnic discrimination and the health of Japanese Brazilian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 743-750.
- Auerbach, E., and Richardson, P., 2005, “The long-term work experiences of persons with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8: 267 - 273.
- Barreto, R. M., and Segal, S. P., 2005,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by Asian Americans”, *Psychiatric Services*, 56(6): 746-748.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Erlbaum.
- Burke-Miller, J. K., Cook, J. A., Grey, D. D., Razzano, L. A., Byler, C. R., Gold, P. B., Goldberg, R. W., Mueser, K. T., and Cook, W. L., 200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among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in multisite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 143-159.
- Cook, J. A., Lehman, A., Drake, R., McFaelane, W. R., Gold, P. B., Leff, H. S., Blyer, C., Toprac, M.

- G., Raxxano, L. A., Burke-Miller, J. K., Blankertz, L., Shafer, M., Pickett-Schenk, S. A., and Grey, D. D., 2005, "Integration of psychiatric and vocational services: A multisit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supported employ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1948-1956.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vid, E. J. R., 2010, "Cultural mistrust and mental health help-seeking attitudes among Filipino America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 57-66.
- Denzin, N. K., and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ixon, L., Lucksted, A., Medoff, D., Burland, J., Stewart, B., Lehman, A., Fang, L., Sturm, V., Brown, C., and Murray-Swank, A., 2011, "Outcomes of a randomized study of a peer-taught family-to-family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2(6): 591-597.
- Donnell, C. M., Mizelle, N. D., and Smith, K. S., 2011, "Racial-ethnic minorities with co-occurring disorders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Journal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35: 73-82.
- Drake, R. E., and Bond, G. R., 2008, "Supported employment: 1998 to 2008",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1: 274-275.
- Duffy, R. D., and Sedlacek, W. E., 2007, "The work values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4): 359-364.
- Elliot, T. R., and Leung, P., 2004, "Vocational rehabilitation: History and practice", 319-343, in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3rd ed)*, edited by Walsh, W., and Savickas, M. L., Mahwah, NJ: Erlbaum.
- Erikson, E., 1959,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I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
- Fouad, N., and Byars-Winston, A., 2005, "Cultural context of career choice: Meta-analysis of race differenc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 223-233.
- Gewurtz, R. E., Cott, C., Rush, B., and Kirsh, B., 2015, "How is unemployment among with mental illness conceptualized within social policy?", *Work*, 51(1): 121-133.
- Glover, D. A., Carmina, J. V., Sciolla, A., Zgang, M., Myers, H. F., and Wyatt, G. E., 2010, "Childhood sexual abuse severity and disclosure predict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biomarkers in ethnic minority women",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11: 152-173.
- Hampton, N. Z., 2000, "Meeting the unique needs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with disabilities: A challenge to rehabilitation counselor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31: 40-48.
- Harvey, S. B., Modini, M., Christensen, H., and Glozier, N., 2013, "Severe mental illness and work: What can we do to maximize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 with psychosi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7: 421-424.
- Himle, J. A., Weaver, A., Bybee, D., O'Donnell, L., Vlnka, S., Laviolette, W., Steinberger, E., Golenberg, Z., and Levine, D. S., 2014, "Employment barriers, skills, and aspirations among employed job seekers with and without social anxiety disorder", *Psychiatric Services*, 65(7):

924-930.

- Hwang, W., Myers, H. F., Chiu, E., Mak, E., Butner, J. E., Fujimoto, K., Wood, J., and Miranda, J., 2015, "Culturally adapt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hinese Americans with depres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sychiatric Services*, 66(10): 1035-1042.
- Kennedy-Jones, M., Cooper, J., and Fossey, E., 2005, "Developing a worker role: Stories of fou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2(2): 116-126.
- Kim, M., 2013, "The effect of concurrent alcohol, drug, psychiatric and vocational treatment on consumer issues, treatment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Doctoral dissertation, East Carolina University.
- Lam, C. S., Tsang, H. W., Corrigan, P. W., Lee, Y., Angell, B., Shi, K., Jin, S., and Larson, J. E., 2010, "Chinese lay theory and mental illness stigma: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6: 35-40.
- Laudet, A. B., Magura, S., Vogel, H. S., and Knight, E., 2000, "Support, mutual aid and recovery from dual diagnosi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6(5): 457-476.
- Leff, J., and Warner, R., 2006,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ong, F. T. L., and Kalibatseva, Z., 2011, "Effective psychotherapy for Asian Americans: From cultural accommodation to cultural congruenc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8: 242-245.
- Lerner, D., Adler, D. A., Chang H., Lapitsky, L., Hood, M., Perissionotto, C., Reed, J., McLaughlin, T., Berndt, E., and Rogers, W., 2004, "Unemployment, job retention, and productivity loss among employees with depression", *Psychiatric Services*, 55(12): 1371-1378.
- Liu, W. M., Iwamoto, D. K., and Chae M. H., 2011, *Culturally Responsive Counseling with Asian American Men*, New York, NY: Routledge.
- Lo, C. C., and Cheng, T. C., 2014, "Race, unemployment rate, and chronic mental illness: A 15-year trend 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9(7): 1119-1128.
- McGurk, S. R., and Mueser, K. T., 2014,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severe mental illness", 165-177, in *Treatment-Refractory Schizophrenia*, edited by Buckley, P. F., and Gaughran, F., New York: Springer.
- Millner, U. C., Rogers, E. S., Bloch, P., Costa, W., Pritchett, S. and Woods, T., 2015, "Exploring the work lives of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from a vocational psyc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4): 642-654.
- Mueser, K. T., and McGurk, S. R., 2014, "Supported employment for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L'Encephale*, 40(2): S45-S56.
- Mueser, K. T., Bond, G. R., Essock, S. M., Clark, R. E., Carpenter-Song, E., Drake, R. E., and Wolfe, R., 2014, "The effects of supported employment in Latino consumer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7(2): 113-122.
- Pearce, K., McGovern, J., and Barrowclough, C., 2006, "Assessment of need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an Asian population of career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4: 284-292.

- Perrone, K., Sedlacek, W. E., and Alexander, C. M., 2001,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career goal attain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 168 - 178.
- Rinaldi, M., and Perkins, R., 2004, "Vocational rehabilitation", *Psychiatry*, 3: 54-56.
- Russinova, Z., Griffin, S., Bloch, P., Wewiorski, N., and Rosoklija, I., 2011, "Workpla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5(3): 227-241.
- Salkever, D., 2013, "Social costs of expanding access to evidence-based supported employment: Concepts and interpretive review of evidence", *Psychiatric Services*, 64(2): 111-119.
- Sheu, H. B., and Sedlacek, W. E., 2004, "An exploratory study of help-seeking attitude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by race and gende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 130-143.
- Stone, J. H., 2005, *Culture and Disability: Providing Culturally Competent Servi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4, *Results from the 2013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Summary of National Findings (NSDUH Series H-48, HHS Publication No. SMA 14-4863)*, Rockville, 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Sue, S., Cheng, J., Saad, C., and Chu, J., 2012, "Asian American mental health: A call to ac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7(7): 532-544.
- Swift, J., Stewart, T., Whipple, J., Kominiak, N., 2013, "Asian American preferences for an ideal mental health treatment provider", *Asian Pacific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1): 44-56.
- Tse, S., Ran, M., Huang, Y., and Zhu, S., 2013, "Mental health care reforms in Asia: The urgency of now: Building a recovery-oriented,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in China", *Psychiatric Services*, 64(7): 613-636.
- Walker, D., and Myrick, F.,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 - 559.
- Wewiorski, N. J., and Fabian, E. S., 2004, "Associ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diagnostic factors and employment outcomes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6: 9-21.
- Willis, G. B., 2005, *Cognitive Interviewing and Questionnaire Design: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orkforce Investment Act, 2005, "Substantial finds are used for training, but little is known nationally about training outcomes", *Congressional Report, GAO-05-650*, Washington D.C.

Meaning of Work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 Focused on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sians and white Americans –

Kim, Min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Millner, Uma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work between Asi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living with mental illness. Employment is important for recovery of Asian Americans with mental illnes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reasons of low participation and completion rates on recovery and employment services for Asian Americans with mental illness. Although few studies have suggested that exploring cultural difference is a key to understand these issues, no study have explored how their culture influences a viewpoint on work. Therefore, a study to explore the meaning of work and influences of culture on work is required. This study us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 Internet version of world of work survey was developed based on results of study by Millner(2015) and cognitive interview.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to August 2015 and 91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 completed the survey. T-test was used for analyzing qualitative data and researchers analyzed qualitative data. Asian American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employment and have more difficulty at workplace and in receiving recovery and vocational servic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inform the development of recovery-oriented employment for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 from diverse ethnic groups.

Key words: Asian America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meaning of work, discrimination at work, messages in using recovery and employment services

[논문 접수일 : 15. 09. 29, 심사일 : 15. 10. 15, 게재 확정일 : 15. 11. 10]